

현장시선



김진만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단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난 4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학업·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 도래자(2009년생)부터 지원되며,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져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첫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는 신청으로 지원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사업’

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60세 이상 인구의 1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또 전체 노인의 23%가 독거생활을 하고 있어 재산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경제적 학대 판정이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28년에는 본사업을 도입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힘들어질 때 어르신에 요양비나 병원비, 생

활 비용을 본인 뜻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로, 국민연금 공단이 수탁자가 돼 어르신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다.

위탁재산 범위는 현금, 예금, 연금 소득, 기타 현금소득 등 현금성 자산과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 주택연금 등이며 최대 10억원까지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은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3자에 의한 재산 부정사용 위험도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7월 말 현재 전국에서 183명이 신청했고, 제주에서도 2명이 신청해 현재 재정지원계획 수립 등 재산관리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설

치안 과다 확산… 총체적 대응 나서야

올해 초 태국정부가 디즈니랜드 유치에 뛰어 들었다. 관광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올해 1~4월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호텔 객실점유율은 50%대로 추락했다. 중국인 단체관광에 의존해 온 호텔들의 타격이 컸다.

태국관광 부진의 원인은 다각적이다. 항공료·체류비 부담, 바트화의 강세에다 안전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지난해 초 발생한 자국 배우 납치 사건의 영향이 적잖았다. 그는 캐스팅 제의를 받고 입국했다가 납치됐다. 사흘 뒤 풀려났지만 식발에다 초체한 모습이었다. 범죄 조종도 납치돼 사기 수법을 교육 받았다고 전해진다. 비슷한 사건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발길을 돌렸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200만명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17.8% 줄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치안 과다 확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아제 정례회를 통해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지적처럼 최근 언론·SNS 등을 통해 제주치안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영상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악의·편파적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취약지에 대한 순찰·모니터링 강화 등 보안책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가짜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민할 시점이다. 총체적 대응 없이는 위기의 제주관광을 되살릴 수 없다.

찾아지는 ‘원정 출산’… 대책 마련 공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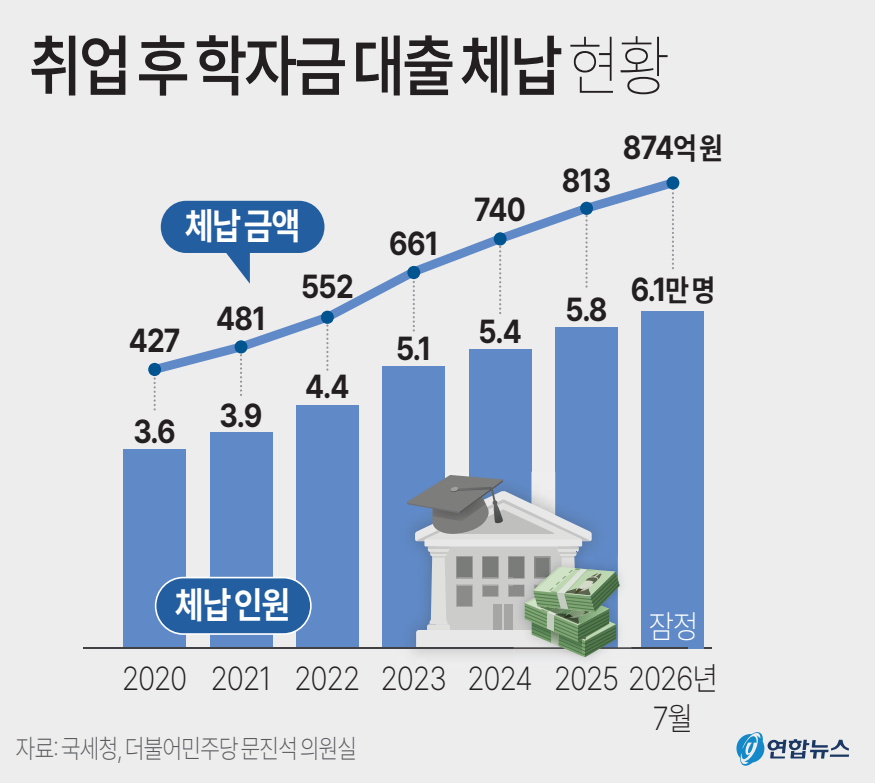
‘원정 출산’이란 단어가 이젠 낯설지가 않다. 출산 인프라가 부족해 도외로 나가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이미 도내 출생아 4명 중 1명을 받아온 산부인과가 폐원했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분만을 담당하는 제주대병원마저 연말까지 산과 전문의 1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과 교수 3명 중 1명은 휴직 중이고 다른 1명도 9월부터 휴직에 들어갔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교수 1명이 고위험 분만을 전담하게 돼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우려된다. 정문제의 심각성은 인구 규모에 비해 분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6개 종합병원 중 일반 분만이 가능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라병원 은 인력 부족으로 기존 환자 중 심의 제한적 분만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외로 원정 가는 고위험 임신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25일까지 고위험 임신부가 소방헬기로 도외로 이송된 사례는 총 49건이다. 지난 6월에는 세 쌍둥이 임신부가 대수로, 8월엔 임신 24주 임신부가 부산으로 이송됐다. 태어난 아이 10만 명당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부의 사망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모성 사망률은 제주가 전국 최고다.

필수 의료인력 부족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같은 처지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 행정당국과 병원 측은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 확보 대책 마련에 적극 공조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바다 건너 이어진 고향 사랑, 제주가 답할 때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제주에는 바다보다 깊은 인연이 있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고향을 마음에 품었던 재일제주인들이다.

생계를 위해 일본에 정착한 재일 제주인들은 낯선 땅에서 고단한 삶을 일구면서도 제주를 잊지 않았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도 성금과 물품을 보내고, 학교와 마을회관을 세우며 도로와 전기·수도 등 제주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오늘의 제주를 이야기할 때 재일 제주인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어르

신이 됐다. 오랜 타국 생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외로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다. 고향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던 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제14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을 진행한다. 모금액은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모금은 지원을 넘어, 제주가 받았던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다. 재일제주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제주가 어려웠을 때 재일제주인이 제주를 품었던 것처럼, 제주가 재일 제주인을 품어야 한다. “고향은 여러 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따뜻한 안부와 작은 정성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 바다를 건너온 고향 사랑에, 이제 제주가 답할 때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제주영락교회故 박지운 목사(향년 4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9월 4일

배우자 이경미 사모
아들 박세준
딸 박세은

장례위원장 제주영락교회
담당목사 이광재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복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